

# 왕궁축산단지 '역사 속으로'

### 익산시, 축사매입 마무리... 수질오염 95% · 축산악취 90% 저감 성과 거둬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서린 익산 왕궁 축산단지가 축산악취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익산시는 최근 왕궁 정차 농원 마지막 농가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8일 밝혔다.

왕궁 정차 농원은 1948년 한센인 격리정책 일환으로 조성됐다. 정부가 강제 이주시킨 한센인들에게 축산업을 장려하면서 왕궁 한센인 정착촌을 중심으로 주민 생계를 목적으로 한 축사가 난립했다.

축사가 밀집하자 악취가 심해졌고 비라도 오면 축분이 민경강으로 떠내려가 수질오염을 일으켰다. 결국 호남고속도로 광역악취와 새민금 수질오



염의 주변으로까지 지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왕궁 정차 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왕궁면 일대 축사매입을 시작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키를 잡고 전북도와 익산시가 힘을 썼다. 애초 5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협의

매수는 난항을 겪었고, 매입비 부족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며 20개 축사를 매입하는 데 장장 13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 지난한 세월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 현업축사 매입 이후 왕궁 일대 환경오염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다.

실제 수질기준 척도가 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5% 개선됐고, 복합악취는 90% 저감됐다. 멸종위기 생물인 수달도 돌아와 반가운 변화를 맞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에서 정부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공공승마장에 XR말산업체험관을 개관하고 승마관광도시로의 도약기반을 다진다.

## XR 말산업체험관, 내년 1월 개관

### 익산시, 공공승마장 내... 가상 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익산시가 공공승마장에 XR말산업체험관을 개관하고 승마관광도시로의 도약기반을 다진다.

시는 공공승마장에 4차 산업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가상 말체험을 할 수 있는 XR말산업체험관을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XR말산업체험관은 2층 236㎡ 면적에 무료점진 어트랙션, 라이브스케이프, AR 포토존 및 휴게공간이 있고 유료점진으로는 VR마차체험, VR말관리사 체험, MR승마체험이 있다. 유료점진 프로그램 이용료는 5천원이다.

시는 승마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몰입도가 높은 XR콘텐츠로 제작해 승마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상체험으로 승마의 두려움

과 거리감을 해소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 단위 등 다수 이용객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미륵사지석탑, 왕궁리 5층석탑 등을 콘텐츠로 활용해서 관광객의 홍보역할을 톡톡히 한다.

시는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꼬마체험장 운영도 앞두고 있어 서해안권역 거점승마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승마가 생활스포츠로 정착되면서 승마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XR말산업체험관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승마장으로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차단방역 총력 대응

### 반경 10km이내 방역대 설정

익산시는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중계농장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이 발생함에 따라 AI 추가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시는 즉시 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이내 방역대를 설정했다.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발생농가 2개소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을 신속히 완료했다.

또한 모든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방역방제기 3대를 추가 확보해 가금농가 주변과 도로 소독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 추진에



익산시는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중계농장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이 발생함에 따라 AI 추가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빈틈없이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 개최

군산시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2023 군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인 전시회는 군산시를 포함하여 자매도시인 미국 타코마시, 캐나다 윈저시, 우호도시인 중국 베이하이시, 교류도시인 일본 다카마쓰시, 가고시마시와 2023년 4월 군산에 처음

방문하여 교류하고 있는 헝가리 바토니테레네시 등 6개국 7개 도시가 참가했으며 각 도시들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총 150점을 전시했다.

또한 참가 도시별 국기 색깔이 그려진 군산시 캐릭터 '밝음'이 그리기 등 체험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포토존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외 친구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림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린 동생들의 무한한 상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 경주시 주민자치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익산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가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8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두 도시간 주민자치 자매결연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김양배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과 경주시 주민자치위원, 권영부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과 80여명의 경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0월 익산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경주시를 방문해 지역 우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자매결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경주시 주민자치위원들과 다시 만나 교류의 물꼬를 텄다.

두 단체는 △진밀한 우호 관계 확립 △다양한 교류 활동 추진 △지역발전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권영부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교류행사 추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우의를 다져 익산과 경주의 협력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배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의 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익산시와 경주시의 주민자치가 꾸준히 협력해 동서화합 및 공동발전의 자양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백제왕도 익산시와 통일신라대표 경주시가 발전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전화 운영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65일 24시간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전화1388'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1388'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처한 청소년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부모에 대한 상담부터 문제해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라인이다. 실무경력을 갖춘 청소년 전문상담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며 QR코드를 통한 카카오톡 채널 및 사이버상담 연결로 접근성을 높였다.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서까지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

군산시는 지난 6일 2023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대표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예산 및 성과지표, 세부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 제외 사업, 신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2024년에 맞게 계획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지난 10월부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분과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및 주민 공고를 거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틀과 세부 내용을 유지하되 각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복지도시 군산'을 목표로 8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을 반영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